



한암(漢岩) 선사(禪師)의 편지 <17>

“관세음보살 성호를 일심으로...”

보살은 상여를 두어 뒤에... 관세음보살 성호를 일심으로... 관세음보살 성호를 일심으로... 관세음보살 성호를 일심으로...

의뢰하신 분께... 관세음보살 성호를 일심으로... 관세음보살 성호를 일심으로... 관세음보살 성호를 일심으로...

묘연심 보살에게 답하는 편지(위) 한서운 보살에게 답하는 편지(아래)

복승심, 여름 더위에 기력(氣力)이 강건하시다니 반갑사오며, 따님 환후로 걱정되심이 오죽이 괴로우시겠습니까. 금맥 잘 받았사오며, 관음기도 여전히 성심껏 봉행하옵는 중인데, 다시 성심껏 축원해 드리오니 염려 마시옵소서. 모쪼록 관세음보살 성호(聖號)를 일심으로 생각하십시오. 모든 화액을 소멸하고 많은 복락을 받으시게 하시옵소서. 환후에 계신 따님께도 권하십시오. 무학행께서는 하간(夏間, 여름 동안)에 예산을 본택(本宅)에 계십니다. 말이 선후를 잊었습니다. 여러 신도님에게도 다 안녕하시는지? 두루 문안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이 혼미하와 이만 그치옵나이다.

이 편지는 강원도 흥천에 살고 있는 한씨 일여행(韓氏 一如行) 즉 한서운(韓瑞運) 보살에게 보낸 서간이다. 편지를 받는 이가 보살님이므로 순 한글이다. 당시 상원사에서 가사불사를 한 것 같으며, 일여행 보살이 흥천 지역 신도들에게 가사불사에 동참하도록 권유한 것 같다. 한암선사는 가사가 없는 수좌들에게 해 줄려고 한 것 같다. 힘이 되는대로 할 것이요, 어려운데 억지로는 하지 말라고 간곡하게 당부하고 있다. 편지에는 3월 27일 날짜만 있고 연도는 없다. 다른 자료에서 고증한 결과 기축(1949년)으로 밝혀졌다.



윤창화(도서출판 민족사 대표)

망자 위한 시다림 염불 봉사 20년 “지극한 정성 최고의 수행이자 전법”

20년 시다림 봉사, 손기원 영화법사

우리는 흔히 타인으로부터 곤욕을 치르거나 괴로움 등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것을 ‘시다림 당한다’고 말한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쓰이는 ‘시다림’은 본래 불가에서 죽은 이들을 위해 염불과 설법을 해주고, 장례의식을 치러 주는 시다림(尸茶林)에서 유래했다. 죽은 이들을 위해 법문을 하고 장례의식을 집전하는 것이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든 과정인지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런 시다림 봉사를 20년 넘게 해오고 있는 한 불자가 있다. 바로 불광사 영화부 손기원 법사(63)다. 불광사에서 시다림 봉사를 영화활동이라 하여 부서를 꾸리고 있다. 이중 손기원 법사는 영화부에 상주하며 스님과 함께, 때론 스님을 대신해 망자를 배웅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불광사의 유일한 영화법사

손기원 법사는 1994년부터 2004년까지 영화부원으로 활동하다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영화법사 활동을 시작했다. 사실 손 법사가 맡은 영화법사라는 직책은 불광사에만 있는 특수한 자리다. 1982년 불광법회 범주였던 광덕 스님은 영화부를 만들며 두 가지 원칙을 세웠다. 첫 번째가 바로 영화부원은 몸과 마음가짐을 스님과 똑같이 한다는 것이었다. 광덕 스님은 장례식에 스님이 없다면 재가자도 스님과 같이 요령과 목탁을 들고 망자를 천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영화법사’라는 직책을 만들었다.

손기원 법사는 현재 불광사에서 유일한 영화법사로 2005년 부촉 받았다. 그만큼 손 법사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영화법사직에 임하고 있다.

“불광사의 모태는 재가자들의 모임인 불광법회입니다. 80년대 초부터 지금 있는 자리 주변 땅을 사서 법당을 짓기 시작했어요. 영화부는 그 때인 82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출가하는 스님들이 적어지다 보니 시다림을 비롯한 생활불교 전반을 재가자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였어요. 예전에는 30명 가까이 부원이 활동했는데, 지금은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위주로 15명이 활동하고 있어요. 낮에는 저와 지도법사 스님이 가



불광사 대웅전에서 손기원 법사가 부처님에게 기도를 올리고 있다. 손 법사는 매일 금강경을 수지독송한다.

고, 밤에는 부원들이 찾아가 염불독경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유족들의 요청이 오면 손기원 법사는 지도 스님과 함께 장례식장을 방문한다. 먼저 스님과 함께 고인이 부처님에게 귀의하는 수계염불을 한다. 둘째 날에는 입관 염불로 의식을 집전하며, 마지막 날에는 발인부터 장지까지 동행해 염불로 극락왕생을 기원한다. 만약 장례식이 여러 군데에 있다면 스님과 손 법사는 각기 따로 활동한다.

“상이라는 것이 없다가도 동시에 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면 지도 스님은 다른 곳으로 가시고 제가 집전을 합니다.”

1994년부터 영화부 봉사활동

2005년 법사 부촉 후 집전 시작

연간 방문 상가집 130곳 넘어

한 상가당 봉사인원 4명 제한

매달 첫째 주 수요일 봉사 점결회의

유족 위와 함께 장례상담도 겸해

상장례 통한 불교포교 평생 발원

다. 법사로 부촉 받았지만 아무래도 재가자가 집전한다는 것이 유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런 미안함 때문에 오히려 정성을 다합니다. 또 제 생활도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법사라는 위치에 맞게 최선을 다하고자 마음 먹습니다.”

부처님도 모르는 일정, 연간 130곳 방문

그렇기 때문에 손기원 법사의 하루는 부처님도 모를 정도다. 죽음에는 예고가 없기에 그 때의 상황에 따라 하루 일과를 조정해야 한다. 개인 일정을 잡았다가도, 취소하고, 변경하는 것이 태반이다. 새벽이든 늦은 밤이든 향



불광법회에서 영화부원들이 임명장을 받고 봉사 활동을 다짐하고 있다.

상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전화벨이 울리면 곧장 장례식장으로 떠날 준비를 한다. 장지까지 일정을 소화하고 나면 그 다음날 어김없이 다른 장례식장으로 나선다. 그렇게 1년 동안 다니는 상가가 130군데에 달한다.

“처음 영화활동을 시작 할 때 다짐했습니다. 망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유족들을 위로하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요. 저녁에 집에 들어와 잠깐 잠을 자고 다시 새벽에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건강하지 않습니까. 영화활동을 하고 나서 어디 아파본 적이 없어요. 이게 다 부처님의 가피라고 생각합니다.”

손 법사는 “입관과 화장을 할 때 가족들이 서글피울 때 마음이 울컥하는데 특히 예기치 못한 죽을 앞에서 염불할 때는 자신에게도 슬픔이 다가온다”며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염불소리가 끊겨서는 안 되기에 슬픔과 안타까움을 삼키고 망자를 배웅하는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덕 스님 가르침 ‘상가에 민폐끼쳐선 안돼’ 실천

손 법사의 무거운 책임감은 광덕 스님 가르침에서 비롯됐다. 앞서 광덕 스님은 법사를 부촉하며 “절대 상가에 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손 법사와 영화부원들은 그 가르침에 충실히 따르고 있다. 다른 곳과 달리 염불봉사도 한 상가 당 4명 내외로 방문한다. 너무 많이 가면 민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가에 가서 식사도 하지 않으며 일체의 금전적인 거래도 하지 않는다. 또 매달 첫째 주 수요일 지도법사 무아 스님을 중심으로 점결 회의를 열고 개선할 점 등을 공유한다.

장지에 내려갈 때도 손 법사는 직접 자신의 차를 운전한다. “가끔 아주 먼 지방에 장지가 있을 때가 있어요. 예전에 해남에 내려 간 적이 있습니다. 스님을 모시고 도착하니 유족 분들이 와준 것만으로도 고마워 하시더라고요.”

손 법사가 처음부터 영화부 활동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다. 손 법사는 오랫동안 서울은행에서 일한 금융맨이었다. 1980년대부터 불교에 관심이 있어 불광사에 다니게 된 손 법사는 기초교육을 받으며 목탁을 치는 것이 그렇게 좋았다고 한다.

“신도교육 시간이었어요. 한 대학생 불자가 의식에서 목탁을 치더라고요. 아!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초교육을 마치고 나니 영화부 교육 중에 목탁을 치는 것



불광사 영화부는 영화활동 외에도 연등축제를 비롯한 불교계 행사에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Advertisement for Sungjongsang (성종사) featuring a large bell and a man working on a bell. Text includes: 성종사, 대만 최대 불광산사 범종 수출! 세계로 수출되는 성종사 범종! 우리의 자랑스런 불교문화유산입니다. 이 사람이! 나는 종을 위해서 한쪽 눈을 바쳤어 혼을 담아야 천 년의 소리가 나오는 거지 잔재주 부리면 끝이야 끝! 고객을 위한 원칙과 고집 한국의 명장, 당신의 마음을 배우겠습니다!